

기억과 문학에 대한 알리바이

《명주》는 문학평론가 방민호의 첫 번째 산문집이다. 보통 단문들이 일정한 분량이 되면 묶어내는 의례적인 산문집이 아니다. 애초에 책 발간을 염두에 두고 쓰여진 글들이기에 일정한 흐름과 양식을 보여준다. 총 3부로 나누어져 있다. 1부 '나는 더 이상 소년이 아니다'에는 평범치 않은 가족사와 그늘진 유년의 기억이 담겨 있다. 2, 3부인 '사물을 응시한다는 것' '말은 환원을 거부한다'에는 문명, 말, 문학에 대한 단상을 실었다.

문학산문집이란 낯선 용어는 의도된 것이다. 그래서 도입한 것이 산문의 몽타주화이다. 영화에서 몽타주란 짧은 장면을 연속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새로운 현실을 구축하여 시각적 리듬과 심리적 감동을 주기 위한 기법이다. 그것이 문학에서도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새로운 형식의 글쓰기를 시도했어요. 기록과 회상을 몽타주로 조합해서 사실보다 사실에 근접되게 기록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짧게 썼습니다. 시간적으로는 단속되어 있지만 끊어진 것들



을 이어 붙이면 재구성되는 것이지요. 재구성은 독자들의 몫입니다.”

그는 인생관이 대학에서 결정되었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산문집을 구성하다보니 정작 그에게 영향을 미친 것은 어린 시절이었다. “그때부터 삶에 대해서 명암과 색조의 형태로 어떤 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 문학의 중요한 근거였다고 생각해요. 책에 쓴 산문제목처럼 ‘푸르른 폐병’이나 ‘산의 뒷면’ 같은 삶에 깃든 어떤 우여곡절, 그늘을 봤던 거죠.”

사춘기 땀 문학의 열병을 앓았다. 고등학교를 다닐 때 그는 외관상 모범생이었다. “그 외관과 내 안의 간극이 너무 컸습니다. 그 간극에서 오는 정신적인 압력이 컸던 것 같아요. 더 이상 공부를 하지 않고 문학을 하겠다고 선언했었죠.” 외부의 압력과 내부의 압력은 결국 탈을 불러왔고 한밤중 발작을 일으켜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다. 다행히도 한번의 폭발로 그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다.

386세대의 삶을 살아온 그이기에 1980년대는 살아남기 위해 넘어야 할 벽이다. 이상을 잃어버리고 기존 질서에 편입되고 말았다는 부채감이 있는 것이다. “이 책이 어찌면 제 삶에 기억과 문학에 대한 알리바이를 제공하기 위해 쓰여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꽃을 잃고 나는 쓴다’라는 동일한 제목하에 세 편을 수록했어요. 꽃은 과거일 수 있고 과거에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걸 잃어버린 인간이 잃어버린 것에 대해 쓴다는 거죠. 한 번으



론 부족했습니다. 세 번을 쓸 정도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제 자기를 새롭게 수립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과거를 후일담으로만 대하면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죠.”

그는 비평가이다. 그렇지만 문학을 장르로 구분하고 싶진 않다. 글이 가지는 본래의 자유 의지를 형식에 얽매이게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아직 구상중이지만 정적이고 침묵의 공간이 갖는 의미에 관한 산문을 준비하고 있다.

어린 시절 다락방 함 속에 있던 연둣빛 명주천을 본 소년 방민호는 그 아름다운 빛깔에 매혹당한다. ‘그것은 아름답고 소중한 아련한 것, 그러나 시간을 거꾸로 되돌려 다가갈 수 없는 그리운 모든 것’으로 남아 그의 삶을 이끌어 주고 있다. 누구의 삶에나 ‘명주’ 같은 존재가 있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그동안 잊었던 자신만의 ‘명주’를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문호**

취재 강경희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